



교육신문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입니다

이 달의 지면

- 02 사범대학/교육대학원 소식
- 03 교육과 이슈/교육단신
- 04 교육과 학문/문화평
- 05 교육과 스승
- 06 교육과 세계/교육현장 노트
- 07 교육과 공동체
- 08 문화탐방

학사 일정

11월

- 6(금) 종합시험(10월 시험) 결과 발표(예정)
- 10(화)-12(목)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 16(월)-12.4(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 28(토)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시행(예정)

12월

- 4(금)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및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 마감
- 8(화)-21(월) 2학기 기말고사
- 18(금) 2021학년도 전기 입학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2(화) 겨울방학 시작
- 25(금) 성탄절(공휴일)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독회원 등록

- 전 화 02-3290-1690
- 이메일 edunews@korea.ac.kr

- 발행인 정태구
- 주간 박종훈
- 간사 문장원
- 발행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창간 1971년 5월 10일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초점

한마음으로 새 시대를 선도하는 대전교육가족

■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대전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가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힘차게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대전교육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교육에 주력해왔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육 비전과 주요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의 비전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을 나아가야 할 지표로 설정하여 다섯 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혁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전인적 성장 지원과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교육, 꿈을 키우는 진로와 직업교육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구축하여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갑니다. 다섯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육 경영으로 교원의 교육전념 여건 조성하고 효율적인 교육현장 지원 및 청렴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의·융합형 인재란 무엇인가요?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변화가 가속화되는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격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능력입니다. 현대사회에 끊임없이 발생 중인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유연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효율

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 역량이야말로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형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덕연구단지 외 연계한 과학·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를 비롯한 AI교육, SW교육, 수학교육을 더욱 내실화하며 독서교육과 문예체 교육(문화·예술·체육활동의 융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께서 대전광역시 교육가족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교육은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이 교육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대전교육공감원탁회'를 매년 운영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시민 100여 명이 함께하는 자유로운 정책토론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 회의를 분기별로 진행한 결과 제안된 의견 중에서 77%가 반영되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이를 대전교육에 대한 상호 이해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유튜브와 줌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역점사업이 있으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를 바탕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과학도시 대전의 특색사업인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와 국외 과학단지 체험연수를 비롯하여 AI교육, SW교육, 수학교육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과 독서교육, 문예체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염병 상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합니다. 학생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방역물품 추가 구비, 방과후 취약시설 집중관리 등 전방위적 준비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결손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다채로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습과 놀이, 휴식 간 조화를 이룬 다양한 공감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공간혁신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토대로 학생들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생생활교육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확대개편하여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신념과 참다운 가치관을 가진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언제, 어디에서든 잘 적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격려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는 미래를 만듭니다. 교육의 성패는 교육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육자는 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있어야 훌륭한 교육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자로서 우리 학생들을 이끌어야 할 여러분께서는 전공은 물론 독서와 다양한 체험으로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넓고 깊은 지성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아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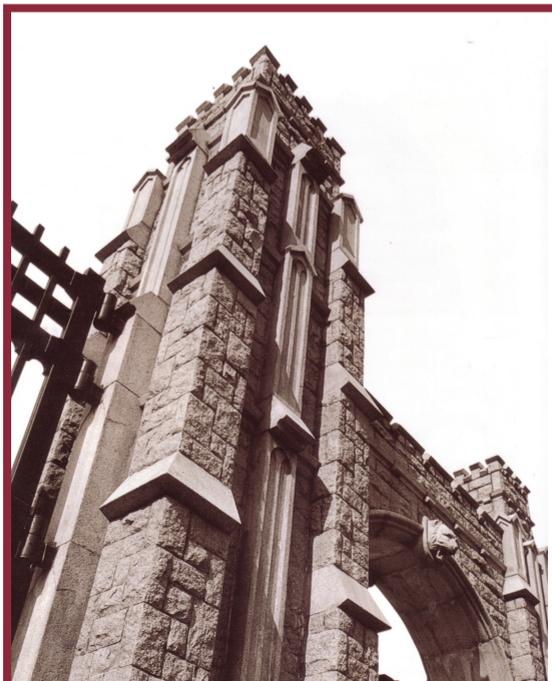
KU의 사계를 교육신문과 함께!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발행하는 교육 전문지 '교육신문' 발전기금을 모금합니다.

교육신문 발전기금 납부 및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give.korea.ac.kr>)의 '고려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서에 인적사항 및 주소를 기재하시고
작성한 서류를 교육신문사로 보내주시신 뒤, 계좌로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하신 회비와 광고게재료는 기부금 납부 영수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주 소 :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본관 107호 교육신문사
- 연락처 : 02-3290-1690 - 팩스 : 02-923-4540 - 이메일 : edunews@korea.ac.kr
- 교육신문 발전기금 • 교육신문 구독비 - 연회비 : 2만원 - 평생회비 : 20만원

※ 발전기금은 법정기부금으므로 세액공제 가능.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취득 가능 여부 조회 안내

본교 교직원들은 지난 9월 21일(월) '2021년 전기(2월) 교육대학원 졸업예정학생 대상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신청'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였다.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전문상담교사 1·2급 자격증, 중등2급 부전공 자격을 신청한 원생들은 조회기간(11월 30일(월) 14시~12월 31일(목)) 중 포털을 통해 자격 취득 가능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무시험검정원서 조회(교육대학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학년부터 전공 및 교직평점은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전공 및 교직평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검정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교직 적인성검사 및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은 자격취득 필수요건

이며, 관련 안내는 교육대학원 및 교직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2013학년부터 적인성검사는 2회(2012학번까지 1회)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적인성검사 결과는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인성적성검사조회(교육대학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실습은 학년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아야 하며,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은 '포털'정보생활>교직사항>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조회(교육대학원)'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자격취득요건(과목이수, 인적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평점 등)을 모두 충족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원자격증이 발급되며, 자격증은 졸업일로부터 수령 가능하다. 검정내역이 확인되지 않거나 검정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교직원(02-3290-1333~5)에 문의하여야 한다. 평점 계산의 경우 2020학년도 2학기 성적처리가 끝나는 2021년 1월 말경 확인 가능하며, 평점 미달자에 한해 2021년 2월초 개별 연락이 진행된다.

수료 및 졸업요건과 자격취득요건은 별개이다. 수료 및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자격취득요건을 미충족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은 채 졸업되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접수 일정이 안내되었다. 논문과정으로 졸업할 예정인 원생들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반드시 기간(2020년 11월 10일(화)~11월 12일(목) 오전 11시~오후 8시) 내에 교육대학원 행정실(온초우선교육관 405호)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외 제출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 자격은 교육대학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혹은 이수 예정)하고 외국어와 전공, 교직 등 종합 시험에 합격한 5학기 이상 '논문중심' 재학생 및 일반(영구)수료생에 한하여 주어진다.

해당 원생은 논문 심사료 90,000원을 지정된 계좌(하나은행 391-910005-31404)로 입금하여야 하며, 이름은 '전공명_성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학생과 수료생 모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 환불은 11월 16일(월) 신청분에 한하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한다.

심사용 논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제출 승인서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논문 가제본 3부(스프링 제본)

또는 논문 제출 확인서(논문 가제본 제출: 교육대학원 행정실 제출 시, 논문 제출 확인서: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시)

※ 논문 심사위원 중 외부 위원이 있을 경우 외부 심사위원 인적사항 서류와 외부 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논문 심사 접수자는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행정실에서 확인해야 하므로 대리 제출이 절대 불가하다. 논문 제출 확인서는 가제본을 행정실에 제출하지 않은 원생에게 해당하며, 이는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에게 기한 내에 전달한다는 확인서이다. 이때 확인서의 제출 날짜는 심사위원들과 의논하여 결정한다. 또한, 논문 표절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완제본 제출 기간은 다음과 같다.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은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2021년 1월 6일(수) 오후 4시 30분까지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korea.ac.kr)나의공간>내정보>학위논문제출'에서 진행할 수 있다. 한편, 학위논문 완제본 제출 기간은 2021년 1월 4일(월)부터 2021년 1월 6일(수) 오후 4시 30분까지이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 시행



지난 10월 16일(금) 오후 6시부터 2020학년도 2학기 종합시험이 시행되었다. 이번 종합시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한편, 응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별로 교사장(우당교양관, 온초우선교육관)을 분산하여 시행하였다.

응시자들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된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발열 확인과 손소독을 거쳐 교사장에 입장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응시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했으며, 불필요한 대화 및 불요불급한 이동을 자제할 것을

안내 받았다. 아울러 본교는 응시자의 양옆을 두 좌석씩 비워두는 등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합시험은 총 세 과목으로 1교시에는 교직, 2교시에는 전공, 3교시에는 외국어 시험이 치러졌다. 합격자 명단은 11월 6일(금) 교육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석사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교직 과목, 전공 과목, 외국어 과목)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시험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합격 처리되며 2014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공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

고 있다.

종합시험은 일반적으로 4월과 10월에 시행되며 2학기 이상 이수한 자(12학점 이상, 평점 평균 B이상)에게 교직 및 전공 과목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어 과목은 영어, 한문, 일본어 가운데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재교육과정생은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 과목 중 3과목 평균이 A 이상이면 교직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양성과정생(2011학년부터)은 교직시험 면제가 불가능하므로 교직필수(이론)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어 공인인증시험 면제기준을 충족한 자 또는 학기 중 개설되는 공통영어를 수강하여 통과한 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5학기에는 공통영어를 수강할 수 없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2020학년도 1학기 명강의상 수상자 발표

본교 교육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모든 강의가 종료된 후 수강자들의 수강 소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교수 12명에게 명강의상을 수여한다. 본래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중에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명강

의상 시상식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을 경계하기 위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수상자에게는 별도의 부상 없이 상패가 개별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대학원 명강의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성명	전공	과목명
고향자	교육대학원	교육전문가를위한교육상담
김은비	평생교육전공	여성교육
김희주	유아교육전공	유아미술교육
손혜진	한국어교육전공	외국어교수법연구
신창호	교육사철학전공	현대교육사상
전민호	교육사철학전공	교육사세미나
정지선	상담심리교육전공	심리통계
조대연	기업교육전공	인적자원개발과휴먼웨어
안병윤	생물교육전공	일반생물학
이순영	국어교육전공	독서교육론
한성열	상담심리교육전공	상담의이론과실제
한용진	교육사철학전공	교육기초론

※ 상기 수상자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였음.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제20기 교육경영 AMP 개강식



지난 10월 14일(수) 오전 11시경 온초우선교육관 204호에서 '제20기 교육경영 AMP 개강식'이 있었다. 예정보다 한 달여 가량 늦춰진 이번 개강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개강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하여 이루어졌으며 오프

라인에는 18명, 온라인 방식으로는 14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10시 50분경 정태구 원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11시부터 1시까지 개강 특강이 진행되었다.

정태구 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한다."라며, "유익한 강의와 함께 좋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동기간의 우애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정태구 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화되어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뵈니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시어 본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 '지능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개강 특강이 있었다.

한편, 제20기 교육경영 AMP는 2021년 2월에 수료하며 향후 강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된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2020학년도 2학기 논문작성 학술제

지난 9월 23일(수), 25일(금) 양일에 걸쳐 '2020학년도 2학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논문작성 학술제'가 개최되었다. 본교 교육대학원생(재학생, 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특강(9월 23일(수))에는 106명, 2차 특강(9월 25일(금))에는 97명이 참여하였으며, 중복 인원을 제외한 결과 총 136명의 원우가 이번 학술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1차 특강과 2차 특강은 각 2부, 총 4부로 구성되었다. 1차 특강의 1부(17:00~17:50)에서는 김자미 교수(교육대학원 컴퓨터교육 전공)가 '논문의 체계와 연구방법론'을 강의하였고, 2부(18:00~18:50)에서는 윤견수 교수

(정경대학 행정학과)가 '질적연구와 논문작성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2차 특강 1부(17:00~17:50)에서는 정재립 교수(사범대학 국어교육과)가 논문주제 선정 및 글쓰기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어 2부(18:00~18:50)에서는 윤미리 조교(교육대학원 논문상담실)가 논문 작성 시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였으며, 이를 끝으로 본 학술제는 마무리되었다.

한편, 교육대학원 논문상담실은 사범대학 본관 101A호에 있으며 전화(02-3290-1374) 및 이메일(consult1374@daum.net)을 통해 상담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교육과 이슈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 징조라고 한다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국가환경교육센터장

나는 11년 전에 귀촌을 해서 충남 서천에 살고 있다. 월남(月南) 이상재 선생의 생가 옆에 자리를 잡았는데, 집앞으로는 목은(牧隱) 이색 선생이 한산 팔경의 하나로 시에서 읊으셨던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다. 거실에 앉아 들판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기러기나 무리 지어 춤추는 가창오리 떼를 바라보는 즐거움은 커다란 스크린으로 할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에 비견될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는 창밖으로 줄기차게 쏟아지는 장맛비를 보면서 어느 순간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릴 때부터 비를 맞거나 빗속에서 노는 걸 좋아했던 나는 어느샌가 비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후변화가 자연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을 바꿔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아주 재밌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속담이 하나 있다.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가물 징조라고 한다.'라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을 자주 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소를 잃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늦었지만 고치려고도 노력하고 있다. 그에 비해 앞사람은 자기가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도 그런 현실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물 징조라고 정반대의 판단을 하니 대비책을 세울 가능성조차 없다.

전 세계의 기후과학자들은 최소한 30년 전부터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기후변화로 인해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산업 문명의 이데올로기에 찌든 사람들은 그들의 경고를 완전히 무시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데올로기를 깊이 내면화하고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두고 인간들 사이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 경쟁을 효과적인 분배로 바꾸는 힘은 공급과 소비를 중심으로, 자기조절능력을 갖춘 시장에 있다. 그 시장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모두 상품이다. 좋은 삶이란 더 많이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삶이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화폐이다. 학교는 자기를 더 비싸게 팔리는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월급을 받으면 더 많이 소비하고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서열화와 경쟁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원인이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공장식 축산, 그리고 동물 밀거래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인류가 마스크를 벗고 살 가능성은 없다고 말한다. '호모 마스크스'라고 불릴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것일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상용화되기 전에 더 강력한 인수공통감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화살이 날아와 몸에 꽂히면 빨리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해야 하지만, 그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를 묻고 그 발원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또 다른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인류가 자본주의 산업문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재난과 죽음이 필요한가? 산불, 장마, 폭염, 태풍, 해수면 상승과 침수, 지하수 고갈과 사막화... 나는 인류가 앞으로 다칠 미래의 위협에 대해 미리 대처할 만큼 진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현실이 된 재난과 위협까지 무시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썼을 때 봄은 있었지만 노래할 울새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새는 있는지 모르지만 노래할 봄이 없어지고 있다. 장맛비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라.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가물 징조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담보로 더 많은 화폐를 축적하려는 자만이 거의 틀림없다.

OECD는 '인간개발지수'와 그 나라 국민들의 '평균 생태발자국 크기'를 비교한 연구 결과, '인간개발지수'와 '생태발자국의 크기'는 거의 정비례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고 그에 비례하는 많은 양의 폐기물을 지구에 남기는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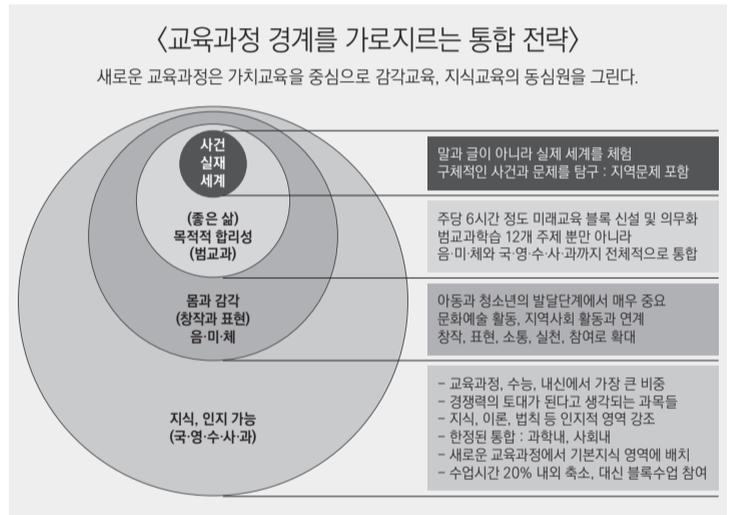
생태 문명은 모든 사람들의 생태발자국이 수치 '1' 이하인 문명이다. 말하자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생태적 수용능력을 넘어서지 않는 삶의 형태를 보편화한 문명이다. 또한, 산업 문명 시대의 멋진 삶이 야만이 되는 문명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비싸고, 더 빛나는 것들이 추한 것으로 취급받는 문명이다.

2022년까지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기기 10년 전에 성균관의 교육과정을 바꾼 사람들이 여전히 사서삼경을 중심에 두었듯이, 차기 교육과정에서도 소위 '국영수'가 대한민국 국가 교육과정의 중심을 차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학습권을 침해하고 미래를 약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차기 교육과정에서는 지구생태시민 양성을 목표로 자립력과 공생력을 기르기 위해 교육과정의 중심과 주변을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것과 같이 뒤집어지는 혁신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교과 지식과 범교과 학습주제는 물론 교과 외 활동까지 포괄하고, 학교 안팎을 넘나들면서 실제 세계의 문제를 깊이 탐구하는 새로운 배움의 경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미래 세대가 장맛비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그림> 교과, 범교과, 교과 외 활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수업블록의 설계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단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5일(월)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그동안 미래교육위원회,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등 광범위한 소통과 대화를 실시해 왔다.

앞서 교육부는 그간의 소통 대화 과정에서 취합한 교육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8.11)',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9.9)',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 실현 혁신방안(9.23)' 등 시급성을 요하는 정책들을 각 분야별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 시안은 최근 발표한 위의 정책들을 포함하여 향후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10대 정책은 다음 표와 같다.

분야	추진 목표	10대 정책과제
유·초·중등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①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②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③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④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안전망 구축
고등·평생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⑤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의 성장 지원 ⑥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⑦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⑧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기반 구축	미래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⑨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⑩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교육부는 연말까지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들 간의 정합성과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을 교육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한글·수학 책임교육 실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8월에 발표한 '교육안전망' 현장 점검과 소통을 위하여 10월 5일(월) 충남 금산군 소재의 금산중앙초등학교를 방문하였다. 유은혜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습결손과 격차를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방지하기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교원·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원격·등교수업의 효율화 방안을 탐색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학습안전망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글 해독 수준 진단·보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초등 1학년 한글학습이 대부분 원격수업 중심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별 한글 해독 수준 진단·보정의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수업 시 '한글 도박도박'을 통해 10월 말까지 초등 1학년 학생별 한글 해독 수준을 두 차례에 걸쳐 면밀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한글학습을 지원하도록 교육청에 요청하였다. 학부모는 자녀의 한글 해독 수준이 기록된 '한글 도박도박' 진단 결과 '성장결과지'를 받아 한글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 수학 시스템 도입·적용

지난 9월 14일(수)부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 수업 및 가정 학습을 지원하는 '똑똑! 수학탐험대' 서비스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을 학교 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춧돌을 마련하였다. 시스템에 누적된 학습데이터는 교육과정 학습소셜 난이도, 교과서 단원 재구성 등 경향성 분석을 통하여 향후 차기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은혜 장관은 간담회에서 2021학년도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들이 사용할 '한 학기 한 권 읽기(가칭 '읽기 뚜벅뚜벅')'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이는 개별화·맞춤형 국어 수업 실현에 목적을 두며 다음의 역할을 한다. △학생의 독서 이력·성향을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반 '맞춤도서' 추천 및 도서 검색 지원 △어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어휘력 진단·보정 및 초등 어휘 등급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자료 산출, 교육용 어휘 선정 또는 교재 개발에 활용 △초등학교 교사들이 도서 관련 목록 및 교수학습 자료를 쉽게 검색·이용·공유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유은혜 장관은 "초등학생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인공지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업 장면에서 학생별 학습 지도 및 상담 등 교사 본연의 업무를 돕는 기반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lathinkerbella@korea.ac.kr

2021학년도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정식 개통

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공·사립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0월 30일(금)부터 시작한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7학년도에 3개 교육청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원생 모집과 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현재는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추천 방식을 중복선발 방식에서 중복선발제한 방식으로 개선하여 3개 지방 모두 탈락할 확률을 최소화하였다.

다만, 지방순에 따라 1지방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개선된 중복선발제한 원칙에 따라 2, 3지방 추천에서 제외하여 2020학년도 중복선발 방식보다 1지방 유치원 선발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올해는 선발된 유아의 등록 포기가 최소화되어 대기자의 선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처음학교로'는 우선·일반모집의 접수결과 및 선발결과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장 접수자는 모바일 서비스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유치원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검증용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검증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이 보훈처로부터 보훈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던 불편함을 해소한 것으로, '처음학교로'에 대한 만족도 제고와 우선모집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일반모집 본 접수 기간 중 병원 입원, 출장 등의 사유로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학부모들을 위해 사전 접수 제도를 신설하였다. 본 접수 전 양일간을 사·도별 각각 하루씩 제공하여 교육청 관내 소속 유치원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접수에는 8개 시·지역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11월 16일(월), 9개 시도 지역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는 11월 17일(화)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원서접수 기능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는 2022학년도 '처음학교로'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2020학년도부터 100%의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서 입학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며, "생애 처음학교인 국·공·사립 유치원 입학에 위해 학부모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과 학문

학습장애: 진단, 명칭, 교육에 대한 초등 특수교사 현장 목소리



민수진

서울성동광진특수교육지원센터 총괄팀장,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연구참여자 검토, 참여자 면담자료, 교사 제출 메모, 연구자 기록, 교육청 공문 등을 비교·검토하는 삼각검증과 동료검토로 결과를 확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학습장애 학생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가 매우 제한적이다. 학부모가 '학습장애' 선정을 싫어하고 난독증을 선호한다는 이유가 지적되었다. 학습장애로 선정된 후 제공되는 차별화·전문화된 지원의 부족으로 학습장애 출현율이 낮은 경향이 있다.

둘째, 진단·평가 시 현 교과부(2010, 이하 연도 생략)의 큰 틀은 유지하되 배제조건의 정제가 필요하다. 학습장애 학생을 만났던 교사들은 모두 교과부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연구참여자들도 이 기준의 핵심인 3개월의 자료수집과 학습장애 특성 발현, 진보 점검을 학습장애 판별 시 우선 고려하였다. 그러나 부정확한 기준으로 인해 학습장애로 선정된 학생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배제조건에서 규정한 타 장애, 즉 학습장애와 ADHD, 정서행동장애, 난독증, 경계선 학생 간 구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표출되었다.

셋째, 학습장애 학생들은 부진과 상이하므로 이들과 지도하기가 곤란하다. 교사 전원은 부진과 학습장애 학생들은 성향과 학업 성취도에 따라 그 특성이 확연히 다른 '이질집단'으로서 부진학생 등을 끌어안는 것에 만장일치로 반대하였다.

넷째, 학습장애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 전체 교사들은 '장애'라는 낙인·표찰, 일반과 특수로 이분하는 기존 인식 잔존, 학부모의 거부감 등의 제한점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정체성을 살려 특수교육 요구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학습장애 학생들에게만 집중하자고 입을 모았다.

다섯째, 교육·지원의 이원 체계와 특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교사 전원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이원 체계로 운영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였다. 일반교육은 부진을 위한 두드림 학교, 협력교사제, 더불어 교사제 등을 실시하고 특수교육은 학습장애 지도에 전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론적 교육강화보다는 현장 현장에서 직면한 학습장애 학생에 대해 고민하고 전문성을 나누는 교사연수와 사례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현 교과부의 부정확한 학습장애 진단·판별 기준은 학습장애 판별을 상당 부분 교사의 임상적 판단에 의존하게 만든다. 따라서 이전처럼 판별 기준을 사도 교육청에 일임하기보다는 국가차원에서 현장교사와 전문가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보다 간명하고 현장 적용력이 강화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습장애와 난독증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통합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수교사들은 난독증을 학습장애로 인식하는 반면, 교육청의 최근 지침은 이를 구분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난독증 표찰을 선호하기 때문에 학습장애 선정이 저조하다. 따라서 '학습장애'라는 용어를 유지하면서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는 ADHD약을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믿고 학습장애 진단 의뢰를 미룬 채 약물 복용에 과잉 의존하기도 한다. 학습장애 학생들이 오판되고 맞춤형 수업을 받지 못하면 학부모들이 공교육보다 사교육에 의존할 우려가 있다.

한편, 현 교육청의 역점 사업인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여

학습장애 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지성' 발휘를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사례연구가 열의 있는 소수의 교사만이 아닌 특수교사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 전문가와 현장교사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교사들에게 학습장애를 포함한 학습곤란학생 지도에 접근하는 국제적인 추이 및 우리나라 실정을 상세히 알려야 한다. 학교 공교육 체제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특수·일반교사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일반교육에서 학습장애와 부진학생 지도에 접근하는 관점·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부진학생 지원 기초학력다중지원팀에는 특수교사가 비일관적으로 배제되거나 포함되어 있다. 팀의 구성원과 역할이 명백히 규정될 때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실제로 협력할 수 있다. 일정 기간의 시간제 특수교육 후에도 학업곤란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절차에 의뢰되고 학습장애 확정 시 개별화교육계획 및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는 유연한 체계가 절실하다.

셋째, 교육의 수혜자인 학습장애학생 및 학부모 의견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부진학생 입장에서 그들을 특수교육 대상학생과 함께 지도하는 것이 결코 정서적으로 좋지는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진학생 학부모도 자녀가 학습장애 학생과 동질집단화 되어 함께 공부하는 것에 반감을 가질 수 있다. 장애학생 및 부모 입장에서 특수교육이 일반학생까지 지도한다면 특수교육 서비스가 비장애학생들에게 분산될 것을 염려하여 반대할 수 있다.

넷째, 부진 등 학습 어려움의 학생들을 특수교육이 함께 지도해야만 한다면 이것은 학교 체제의 변화이므로 학생을 둘러싼 생태학적 지원관계자들(특수·일반교사, 장애·비장애 학부모, 학교 행정가 등)을 현실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학습장애와 부진 간 학습 유사성(요구, 지원) 근거, 선진국의 모범 사례와 협력모델, 증거 기반의 협력지도 교수법, 학습곤란학생들을 특수·일반교육이 성공적으로 협력 중재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례, 그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실제 개별학교에서 사용하는 모형, 그리고 기타 예산 및 행정관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전히 특수교사들은 발견되지 못한 순수 학습장애학생을 조기에 판별하여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원한다. 당면한 문제와 고충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고 일반교육을 받고 있는 학습곤란학생들까지 지도하는 것은 굉장히 버겁다. 반면 이론 전문가들은 학습장애든 부진이든 방치되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비전을 찾고 있다. 현장이 체감하는 것과 학계가 통찰하는 이론·현실 간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고 이러한 문화지체현상 한가운데에서는 서로의 메아리가 난무한다.

일부 학생들을 '장애' 혹은 '부진'이라는 제2의 정체성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교에서 성인기로의 꿈을 실현해가는 개인중심계획의 가치를 살려야 한다. 학생을 둘러싼 생태학적 전문가들이 역할 경계를 허물고 개방·합리적 조율을 지속해야 한다. 특수교육요구가 있는 학생들의 학업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세계적 패러다임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통합된 방향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많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난독증, ADHD, 정서행동장애, 부진 등을 지니고도 정확히 판별되지 못하고 조기 예방적 특수교육을 놓친 채 일반·특수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은 학습문제가 적체·악화된 후 뒤늦게 나타나거나 무방비 상태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곤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18명의 특수교사들이 포커스그룹면담(FGI)에 참여하였다. 이때 특정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도출하는 데 적합한 담론분석 접근을 사용하였다.



교육신문 문화평

크라잉넛 데뷔 25주년: 조선펑크의 과거와 현재 ③

'조선펑크'의 이른 절정, 그리고 균열의 시작

다. 하우스밴드라고는 크라잉넛 한 팀뿐이었던 클럽 '드럭'은 어느새 노브레인, 레이저본 등 한국 펑크록의 초기 역사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밴드들을 거느린, 명실상부 '조선펑크'의 성지로 거듭나 있었다. 언론 역시 발 빠르게 이 현상에 주목했고, 드럭은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급부상한다. 그리고 크라잉넛은 1집 '말달리자'(1998)를 발표하기 이전부터 이미 약동하는 조선펑크의 선봉장으로서 평단과 대중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이들이 기존 문화계에 일으킨 돌풍은 주지하듯 '아워 네이션 vol.1'에 수록된 곡이자 1집의 표제작인 '말달리자'에 힘입은 바 크다. 지금까지도 노래방 애창곡 순위표에서 빠지지 않는 이 노래가 주는 쾌미는 역시 '닥체!'라는 후렴구에서 비롯된다. '말달리자'의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 중 하나는 이후류로 대변되는 공격성과 반발심이 당대 젊은이들의 어떤 분노와 공명하는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크라잉넛, 나아가 조선펑크의 주된 팬층이었던 10대와 20대는 온전히, 혹은 거의 대부분 민주화 이후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다. 지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한국 사회가 마침내 '정상성'을 되찾은 듯 보였던 시대, 누군가의 불행은 더 이상 사회가 아니라 개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

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대였다. 그러나 여전히 "살다 보면 그런 거지." 같은 위로나, "차 있으면 빨리 가지." 같은 척도가 헛되고 이상하다고 느끼던 젊은이들은 또래인 크라잉넛의 새로운 음악과 거기에 새겨진 '닥체!'라는 일갈에서 일시적이거나 해방감을 느꼈다.

이 때부터 2002년에 이르는 시기가 크라잉넛과 이들이 이끄는 조선펑크의 짧은 전성기였다. '말달리자'는 광고 음악으로 전파를 타며 더욱 유명해졌고, 몇몇 드럭 밴드들은 공중파 음악 프로그램에 초청되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공이 뮤지션 자신들의 음악 세계, 그리고 열성 팬들의 지지에 균열을 촉발한다. 즉 본래 형식적인 면에서는 기존의 여타 장르들,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회의 모든 기성 질서에 대한 비판과 전복이라는 펑크 본연의 지향과 '상업화' 사이의 간극이 발생했다. 자기 정체성과 성공 사이의 혼돈은 대중에게 사랑받는 장르와 뮤지션에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펑크록에서는 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장르에서 그것이 '음악'에 국한된다면, 펑크록에서는 '정신'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앞선 글에서 유독 인디음악이 펑크록이라는 장르와 긴밀한 친연성을 갖는다고 말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광고 회사가 자신들의 음악을 사용하는 걸 허락하고,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추는 모습은 소위 '순수' 펑크록 팬들에게 '타협', 혹은 '펑크 정신'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2집 '서커스 매직 유랑단'(1999)과 3집 '하수연가'(2001)는 크라잉넛이 이론 대중적 성공과, 동시에 위와 같은 비판이 정점을 이루는 계기를 제공했다(크라잉넛의 1~3집은 각각 누적 집계 10만 장을 상회하는 판매량을 기록했다). 크라잉넛은 이 때부터 꽤 다채로운 실험을 진행하는데, 우선 2집에서는 브라스를 기반으로 한 '스카(Ska)' 리듬을 활용해 주조한 소위 '뽕뽕'의 정서 위에 '자학을 통한 해학과 비판'을 가사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색깔을 본격적으로 형성하기 시작한다. 나아가 3집은 이러한 색깔을 유지하면서 사물놀이(금환식), 컨트리(웃기지도 않는 이야기) 등을 접목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수록곡 '밤이 깊었네'가 큰 사랑을 받으며 밴드의 인지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제 크라잉넛은 흥대 앞 거리를 넘어 전국에서 통하는 밴드로 성장해 있었다. 그런 만큼 전술한 팬들의 비판은 거세어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선펑크의 또 다른 스타였던 노브레인이 클럽 드럭과의 결별을 선언하면서 첨예화된다(4편에서 계속).

문장원 기자 creep0927@korea.ac.kr



'스트리트 펑크쇼', 그리고 연이어 발매된 컴필레이션 앨범 '아워 네이션(Our Nation) vol.1'(1996)은 '펑크(Punk)'라는 생경한 장르, 그리고 '인디(Indie)'라는 전례 없는 태도의 도래를 알리는 봉화였다. 펑크에 목말라 있던 음악 팬들과, 새로운 문화에 경도된 젊은이들이 연기의 발원지인 흥대 앞에 운집하기 시작했

교육과 스승

‘STEAM 교육’으로 창의융합인재 육성에 앞장서는 민재식 선생님

이번 호 ‘교육과 스승’에서는 교육부와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하신 삼일여자고등학교 민재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STEAM 교육을 국내외로 널리 전파하는 한편,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민재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민재식
삼일여자고등학교 교사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삼일여자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민재식입니다. 혹시 ‘제8요일’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국에 계신 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당신은 영화 제8요일의 조지와 닮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인공 조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아마 이러한 의미로 저를 조지와 닮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수업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입니다. 물론 교과 수업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 참여형 수업, MAKE 교육, STEAM 교육, 최근에는 드론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능한 교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지만 지금은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 꿈인 교사입니다.

선생님께서 STEAM 교육을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STEAM 교육이란 무엇이며, 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STEAM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연한 계기로 STEAM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STEAM 교육 도입 초기 단계였던 2011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부터 ‘STEAM 교육과정 개발 및 이의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요청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STEAM의 현장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STEAM 기초·심화 연수 및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북 제작, STEAM 중장기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등 STEAM 교육의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STEAM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역량을 길러주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STEAM은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 강 의식 수업만으로는 기르기 힘든 역량을 함양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STEAM 교육을 알리기 위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서 교육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까지 STEAM 교육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사례를 배우러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EBS와 STEAM 교육입니다. 저는 태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STEAM 교육을 해 줄 수 있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처음 해외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한 교육봉사였지만 저는 이곳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던 때의 그 눈빛을 그곳 아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배움 그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봉사가 아닌 힐링 여행이라는 느낌마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방학마다 교육봉사를 떠나곤 합니다. 작년 해외 봉사에 함께 입었던 선생님도 처음에는 왜 매년 방학 때마다 사비까지 들어가며 해외로 봉사를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다녀오시더니 그 이유를 알겠다고 앞으로 항상 함께 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TEAM 프로그램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수업을 이어나가는 한편, 그 나라 교사들을 위한 연수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인도와 인도네시아까지 가려고 계획한 바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지 못하게 되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과학문화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진행하시나요?

2005년, 저는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과학축전’이 울산 지역에서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시청에 울산과학축전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자들은 울산은 과학축전을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반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최가 힘



들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인프라만으로도 충분히 과학축전을 개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지역에 계신 50여 명의 과학 선생님들과 함께 30개의 부스를 직접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축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와 교육청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시청, 교육청과 함께 1년간 준비하여 2007년, 비로소 제1회 울산과학기술제전의 막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울산과학기술제전 및 여러 행사를 기획·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과학교육 관련 단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활동을 하는 10여 개의 단체를 규합하여 ‘울산과학문화협의회’를 창립하고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또한, 창의적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민간단체(NGO)인 ‘울산 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를 창립하고, 현재까지 대표를 맡아 여러 선생님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울산 과학교육을 대표하는 행사인 ‘울산과학기술제전’과 ‘과학기술멘토와의 만남’ 등을 주관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고 MOU를 체결하여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교류는 물론, 삼성꿈장학재단 사업, 한국과학창의재단 민간단체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교육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2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봉사 및 재능기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관은 무엇이며, 이러한 교육관이 학생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논어(論語)>의 용야편(雍也篇)에서 전해주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을 좋아하여, 학생들에게도 이를 자주 들려주곤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과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가 강조됨에 따라, 학생 참여형 수업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게 된 저는 교육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미 이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학 박사과정도 수료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왜 교수도 아닌 교사가 박사과정을 두 개나 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좋아서 한다고 답변하는데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로만 교육을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문학박사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저의 이러한 모습을 봐 와서 그런 것일까요. 저의 제자들 중에는 대학 이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저는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끝으로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당부와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조사하면 교사는 항상 1, 2위를 다퉈니다. 하지만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면,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답변수가 OECD 국가의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즐거우신가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행복한 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사는 분명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면 일상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처음 직면하는 문제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이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 방안을 생각하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교육과 세계

아세안 공동체를 준비하는 태국의 교육



김규식

Prince of Songkla University, Thailand
인문사회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967년부터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결성하여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2008년에는 10개국이 모여 '아세안 헌장'을 발표하고 자유무역, 자본의 이동과 투자의 자유 보장, 회원국 간 노동자 이동의 자유 등의 목표를 실현해 가기로 하였다. 아세안 국가들의 인구를 모두 합치면 약 6억 5천만 명에 달하고 경제 규모는 세계 8위를 점유한다.

아세안 회원국 간 분야별 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태국의 교육부도 '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라는 슬로건에 맞추어 아세안 회원국과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에서도 아세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인 태국은 고유의 전통문화와 언어를 지켜온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다. 수코타이 시대에 태국 문자가 창제된 이후 아우타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교육을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1932년 입헌혁명 이후 정부의 주도로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양식 교육을 도입하였다. 최근에 태국은 아세안 공동체 건설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자국의 교육적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아세안 공동체 내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갖춘 국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아세안 교육 내용

아세안 헌장은 각 회원국의 국적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두 13개 조항과 55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아세안 회원국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활동의 틀을 제시한다. 태국은 아

세안 헌장을 바탕으로 아세안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식과 기능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교육의 초점을 둔다. 태국 청소년들은 아세안 공동체의 의미를 이해하며 회원국들의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특성을 배우고 영어와 아세안 국가의 언어를 함께 습득하도록 교육받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보를 창의적으로 이용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면서 국가마다 다른 민족과 종교,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여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교육한다. 나아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며 논리적인 문제 파악과 해결 능력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설정된 교육 목표와 내용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평가 기준도 마련하였다.

학교간 교육 네트워크

태국 교육부는 아세안 교육을 위한 시범학교 및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학교 간 협력 활동을 장려한다. 협력 학교들은 아세안 교육을 태국의 의무 교육 과정에 접목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학습 내용을 체계화하고 있다. 학교와 대학은 아세안 교육을 위한 센터로서 학습 내용과 교재 등을 교사, 학습자,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아세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행사를 기획한다.

교육자의 역할

아세안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학교 관리자의 자질에 대해 마련된 기준은 교육의 안정성과 학습의 질을 유지하며 교사와 학교가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사는 아세안에 대한 지식, 교육내용 개발 능력과 외국어 자료 활용 능력도 갖추도록 했다. 또한, 교사는 국내 혹은 아세안 국가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연구서 작성, 매체 사용 및 학습 방법의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아세안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 책임자의 관심, 외부의 기관과 협력활동 및 홍보 및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 파악 등이 주요 요건으로 제시된다.

교육부의 지원

태국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책임진 기초교육위원회와 대학 교육위원회를 비롯하여 약 9개의 관련 기관에서 아세안 교육을 지원한다. 각 기관은 교육 정책에 따른 아세안 교육을 추진하고 학교 책임자와 교사를 위한 연구 및 정보를 제공한다. 지방 교육청과 소재 학교에 대해서는 아세안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여 자료 개발과 각종 경연대회 개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아세안협회나 아세안교사협회 등과 같은 아세안 교육 관련 단체를 후원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방의 민간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조건

태국의 아세안 교육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나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시각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은 향후 교육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 내용이 좀 더 풍부해야 하고 도시와 달리 지방의 학교들은 아세안 교육을 위해 경제·사회·교육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시행정적인 교육활동이나 관행들이 개선되어야 하고 아세안 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아세안 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보완되려면 좀 더 많

는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세안 교육에서 과거의 교육적 관행이나 중복된 교육 정책이 유지된다면 교육의 참신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제언

태국은 아세안 교육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과 협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각 분야에서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록 그 실행 기간은 짧지만, 아세안 교육의 내용과 환경이 개선되었고 정규 교육 활동의 일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실행 의지와 현장 교육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국도 아세안+3(한국, 중국, 일본)의 위치에서 동남아시아와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으며 과거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대한 정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 온 터라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세안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아세안 공동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화인(華人)을, 일본은 경제를 중심으로 자국의 이점을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와 오랜 관계를 맺으면서 아세안에서 자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것처럼 한국은 아세안 국가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문화 분야를 모티브로 관계를 쌓아가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여기에는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한 특성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배양하고 세분화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윤지현 기자 jfrancesyoun@korea.ac.kr

교육현장 노트

‘교사’라는 직함 너머



성한내
영어교육전문

본 적은 없지만 그리운 마음, 이 말뜻을 이해하는 분들은 지난 학기 교생실습을 다녀온 선생님들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들의 개학이 수차례 연기되었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최초로 학생 없는 교생실습이 시행되었다.

학생들의 등교일과 실습 기간이 맞물려 운 좋게 학생들을 만난 선생님들도 있었지만 필자가 다녀온 문원중학교는 중학교 3학년 등교일과 단 하루 차이로 교생실습 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었다. 화장한 5월에 학생들과 단체복을 맞춰 입고 운동회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겠다는 기대는 이와 함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은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학생들이 부재한 학교는 필자로 하여금 선생님들의 업무현장을 유심히 관찰할 수 있게 하였다. 필자의 담당 교과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알아주는 ‘열정파’이셨다. 선생님께서는 첫날부터 본래 수업이 있었을 시간에 필자를 교실 맨 앞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NEIS 프로그램 사용법부터 칠판의 점선에 맞추어 정갈하게 판서하는 법까지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하셨다. 또한, 학교 선생님들과

과목에 상관없이 가깝게 지내시며 몇 년 전 제자까지 전화로 살뜰히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실습 마지막날 연구부장 선생님께서 알려 주신 사실은 그 선생님께서 기간제 교사사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실제로 학교는 기간제 교사와 정규 교사보다는 학교 업무에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고 강조하셨다. 정규 교사임에도 학교와 학생에 대한 애정 없이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며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이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교사가 가지는 표면적인 직함을 뛰어넘어 스스로 어떠한 가치관을 갖는 교사가 되고 싶은지를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 외에 각 선생님들에게 배당된 부가 업무가 많았고, 학생들이 없는 현장에서도 선생님들은 행정 업무에 온 힘을 다하고 계셨다. 확실히 중학교는 수업 외적 업무를 위해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것 같았다. 연수를 진행하셨던 한 선생님께서는 쌓이는 업무로 인해 교사라는 직업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하셨다. 교사로서 어떠한 가치관

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뇌게 하는 대목이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면 어떠한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들의 진로와 진학을 돕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이러한 고찰이 없다면 나는 담당 교과 선생님처럼 열정적으로 달려 나아가는 엔진이 어느 순간 소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성직자, 전문가 등의 타이틀이 아닌,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타이틀은 무엇일까.

이번 교생실습은 학생들 대신 학생들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마주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연수와 수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선생님들을 보았다. 그에 반해 부임 초기의 열정을 잃으셨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해 앞으로도 계속 예측불가능하게 변화해 나아가는 교육현장. 그 속에서 어떠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또한 어떠한 교사로 불리고 싶은지 자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학교현장 탐방

‘문화콘텐츠융합중점과정’으로 문화콘텐츠 전문가를 육성하는 서해고등학교

이 영화

서해고등학교 교사

※ 필자의 요청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본 과정은

강의식 수업을 대폭 축소하여

학생중심 조별활동, 토론활동,

발표식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지식을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수업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실제로 진행해봄으로써

창작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과 서해고등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해고등학교에서 혁신 및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영화입니다. 본교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해 있는 일반고로, 총 33개 학급 1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중규모 학교입니다. 비평준 지역인 시흥에 위치한 서해고등학교는 비교적 학력 수준이 우수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교는 학생 주도적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공동교육과정(과학과제 연구, 미디어콘텐츠 일반, 프로그래밍) 및 교과특성화 교육과정(문화콘텐츠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혁신학교로도 지정되어 교육과정의 혁신 및 자율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해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교는 ‘유연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융합적인 사람’, ‘전문성을 지니고 타인과 협업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학 시 쓰기 대회, 경제시사만평대회, 리딩점프플러스 등의 활동은 물론, 서해 바람개비 동아리(정규 65개, 자율 65개), 국악관현악단, 건강한 스포츠클럽, 학력 향상 프로그램, 학습 동아리, 포레 튜터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교는 학생들의 진로·진학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서해고는 전시성 행사, 실적 위주의 교육활동을 없애고 오직 학생들의 성장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문제해결 역량, 창의성, 협업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고루 갖춘 인재의 육성을 위해 전교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해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콘텐츠융합중점과정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교는 과목 선택권의 단계적 확대가 반영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일반’이 개설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문학과 매체’, ‘영상제작기초’가 개설되며, 교육과정 클러스터 과목으로 ‘미디어콘텐츠 일반’이 개설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 일반’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토론활동과 모델링 작업을 거쳐 문화콘텐츠 활용 기획서를 완성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현대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 한편, 다양한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문학과 매체’는 시나리오를 감독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기획 의도에 따라 시나리오를 창작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학생 주도의 기획·설계·작성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교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제작기초’는 영상 기획 및 연출, 영상 촬영, 영상 편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영상 한편을 제작하는 교과입니다. 주로 ‘Premiere pro’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교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수학습 활동지를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 과목으로 개설된 ‘미디어콘텐츠 일반’은 인근 타학교 학생들과 함께 협업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진로 관련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수강하고 있는 이 과목은 방과 후 시간에 이루어지는 정규 교과로, 블러타임의 장점을 살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코칭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본교의 교육과정은 점진적으로 학문의 깊이가 심화되고 다양해지며, 그것이 학생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문화콘텐츠 융합과정 관련 교과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더라도 이들이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정규 동아리 및 자율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마케팅 활동, 미술과 융합된 문화콘텐츠 활동, 문화콘텐츠 관련 독서활동, 문화콘텐츠 관련 잡지 발행 등 고경된 틀에 갇혀 있지 않은 다양한 융합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융합중점과정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콘텐츠융합과정 교과에서는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수행합니다. 어떠한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매체의 변화를 수용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발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양한 시각을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 나가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강의식 수업을 대폭 축소하여 학생중심 조별활동, 토론활동, 발표식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지식을 모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수업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는 활동을 실제로 진행해봄으로써 창작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과 매체의 융합을 시도함으로써 창의력과 문학적 표현능력 또한 신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학생들의 진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집중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교사가 전달하지만, 결국에는 학생 스스로의 기량 발휘가 중점이 되는 과정이 바로 문화콘텐츠융합중점과정입니다. 학생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하여 한 편의 완성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학교 또한 학생들이 각자의 의미 있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각 및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 과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콘텐츠융합중점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어려운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교과 특성상 때때로 전문성 있는 외부 강사의 탄력적 활용이 필요합니다. 매체 활용 수업의 경우 외부강사

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코칭 방식의 수업에서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교과 특성을 고려한 외부강사의 탄력적 활용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콘텐츠융합중점과정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은 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개설된 교과특성화 과정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그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본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년 문화콘텐츠 교과 및 융합과정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 지망률과 진학률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과정에 대해 굉장히 높은 열의를 보입니다. 문화콘텐츠 관련 학과를 지망하지 않는 학생들 또한 특성화된 교과 환경에 노출된 덕분에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토론 및 의견을 공유하는 등 소통이 활발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과특성화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디딤돌’이 되는 과정입니다. 교과특성화 교육과정을 단지 그 학교의 특별한 교육과정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배움의 민주성’을 추구하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수진 기자 dkstnws61@korea.ac.kr



문화 탐방

서울 미래유산을 찾아 떠나는 시간, <서울 미래유산, 성북구>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서울 미래유산, 그 가운데 성북구에 위치한 미래유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가운데 미래 세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서울 미래유산'이라고 하는데, 이미 잘 알려진 곳들뿐 아니라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다양한 장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미래유산을 찾아 다 함께 떠나 볼까요?

서울시는 2013년부터 서울 미래유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서울의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서울 미래유산'으로 삼아, 서울의 문화와 유산을 지키고 이를 후세에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서울 미래유산은 이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지정되고 있다. 시민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래유산을 제안하면 서울시가 현황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고, 유산 소유자가 이에 동의할 경우 해당 자산을 미래유산으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처럼 서울 미래유산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 있다. 서울 곳곳에 다양한 미래유산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문화탐방에서는 우리 학교가 속해있는 성북구에 있는 미래유산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북구 미래유산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존하여 후세에 전해야 할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용운이 지은 집이다. 불교 선종(禪宗)에서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열 단계의 과정을 '잃어버린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 중 한 단계에 해당하는 '자기의 본성인 소를 찾는다'라는 의미의 '심우(尋牛)'가 바로 이 집 명칭의 유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집은 특이하게도 북향으로 지어졌다. 보통 한옥을 비롯한 많은 가옥들은 북향으로 짓지 않기 때문에 이 집은 매우 특이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용운 선생은 왜 북향으로 집을 지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남향으로 터를 잡을 경우 조선총독부와 그의 집이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다. 독립 운동가였던 그는 일제에 저항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집을 북향으로 지었다. 그는 안타깝게도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하였지만, 독립을 향한 그의 의지는 그가 살았던 이 공간에 지금까지도 남아 후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전달하고 있다.



<최순우 옛집>

- 장소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5길 9
관람시간: 4월~11월, 오전 10시~오후 4시 (일, 월요일 및 12월~3월 휴관)
관람요금: 무료
관람문의: 02-3675-3401

<간송미술관>

- 장소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관람시간: 정기 개관시간 관람 가능 (매년 2회)
관람요금: 무료
관람문의: 070-7774-2524

<수연산방>

- 장소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6길 8
영업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6시
문의사항: 02-764-1736

<심우장>

- 장소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9길 24
관람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관람요금: 무료

<북정마을>

- 장소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23길 132-3

<길상사>

- 장소위치: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5길 68
관람시간: 오전 3시~오후 7시
관람요금: 무료
문의사항: 02-3672-5945

| 최순우 옛집



최순우는 제4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한 인물로 평생을 한국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힘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그가 1976년부터 생애를 마칠 때까지 살았던 공간이 바로 '최순우 옛집'이다. 1930년대에 지어진 이 한옥은 인근 지역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시민들의 성금으로 이 가옥을 매입하여 그 형태를 보존할 수 있었다. 한국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평생을 바쳤던 최순우 선생, 이제는 후손들이 그의 집을 보존하여 후대의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에서 이 집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더욱 크다. 한편, 집 안에는 '두문즉시심산(杜門即是深山)'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이는 '문을 닫으면 곧 깊은 산속'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이 집의 마당 한 가운데에는 여러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봄·여름에 방문한다면 마치 자연 속에 어우러져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 간송 미술관

간송 미술관은 매년 5월과 10월, 즉 1년에 두 차례만 개관하는 미술관이며, 이때 '간송'은 '문화의 독립운동가'라고 불리는 전형필 선생의 호(號)이다. 간송은 살아생전 미술작품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조들의 예술작품을 수집하는 데 열성을 다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국보 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또한 간송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 간송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구입한 2년 뒤인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간송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미리 구입해 두지 않았다면 이 소중한 유산은 현재 우리의 품에 남아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민족 문화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한 전형필 선생의 자세는 그간 문화를 대해왔던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게 한다.



| 수연산방

수연산방은 소설 '달밤', '돌다리' 등의 작가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상허 이태준의 가옥이다. 이태준은 이 가옥의 당호를 '수연산방(壽硯山房)'이라 하였으며, 실제 1933년부터 1946년까지 이곳에 살면서 많은 문학 작품을 집필하였다. 그야말로 이곳은 이태준 문학의 산실(産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소담한 한옥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곳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수연산방(壽硯山房)'이라는 이름의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옥의 정경을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는 이곳에 잠시 들러 차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 심우장

수연산방에서 나와 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만해 한용운 선생의 동상이 나타난다. 그 옆으로 작은 계단이 나 있는데 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좁은 골목길에 위치한 '심우장(尋牛莊)'에 도달할 수 있다. 심우장은 1933년에 만해 한



| 북정마을과 한양도성

심우장에서 출발하여 골목길을 따라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동네 하나가 나온다. 이 동네의 이름은 '북정마을'이다. 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성북동의 형형색색 지붕들을 내려다보는 작은 재미가 있다. '서울 하늘 마지막 달동네'라는 별칭을 지닌 북정마을 곳곳에는 오래된 골목길의 정취가 가득하다. 버스 정류장조차 예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마을이다. 또한, 이곳은 김광섭 시인의 시 '성북동 비둘기의 배경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익숙한 작품의 배경이 된 공간이라 그런지 왠지 더 정감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마을에는 젊은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살고 있다고 하니, 지나가다 마주했던 그 누군가는 아마 예술가였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 동네는 한양도성을 마주하고 있어 어렵지 않게 성곽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때 한양도성은 많은 훼손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방치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75년부터 다시 복원 작업이 시작되면서 그 가치가 되살아나고 있다.



| 길상사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사찰인 길상사는 사실 대원각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었다. 대원각은 삼청각과 더불어 유명한 요정(料亭) 가운데 하나였는데, 1980년대 중반 대원각 소유주였던 김영한 씨가 법정 스님에게 대원각을 시주하면서 이 공간은 사찰로 재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사찰이 된 초기부터 이곳의 명칭이 길상사였던 것은 아니다. 1995년, 10년의 설득 끝에 김영한의 시주를 받아들인 법정 스님은 '대법사'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열었다. 하지만 2년 뒤, 김영한의 법명인 '길상화'에 기반하여 '길상사'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한편, 김영한은 백석 시인의 연인, '자야(子夜)'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그녀는 그 당시 10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대원각을 시주하는 게 아깝지 않느냐는 질문에 '1000억은 그 사람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라고 말해 주변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그만큼 김영한은 백석의 작품, 그리고 백석 그 자체를 열렬히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성북구에 있는 서울 미래유산을 살펴봤다.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자산들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하는 일은 어쩌면 꽤나 번거로운 일로 여겨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미래유산은 미래세대에게 전달할 '100년 후의 보물'이기 때문에, 미래유산을 지속적으로 선정하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값진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 과정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어떤 행위보다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곳곳에는 미래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 있는 자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이러한 자산들을 미래유산으로 일구어 내보는 것은 어떨까. 이 미래유산이 후세에 더욱 값진 보물이 될 수 있도록 말이다.